

알프스의 대명사 「융프라우」

김윤기

▲융프라우의 등산열차

인터라켄에서 등산열차 타고

알프스의 3대 명산이라면 몽부랑과 융프라우, 마타호른을 꼽게 된다. 그런데 몽부랑은 프랑스 영토내에 있어 스위스의 명산 리스트에는 오르지 않는다.

융프라우(4,158m)는 스위스 알프스의 대명사다. 가장 높은 산도 아니고 웅장함이나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톱이라고 할 수 없는 산이, 가장 유명하게 된 것은 교통이 편하고 주변에 큰 호수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에선 불과 50km, 루체른에선 70km, 국제공항이 있는 취리히에선 120km 거리에 있어, 외국인들이 찾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융프라우 바로 턱 밑에는 커다란 호수가 2개(툰호와 브리엔쯔호) 있다. 이 호면에는 항상 융프라우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융프라우에 오르려면 인터라켄(Interlaken)을 거점으로 해야 한다. 호수(La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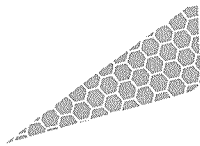
사이에 있는(Inter) 도시란 뜻의 이름이다. 베른에선 기차로 1시간, 루체른에선 2시간, 제네바·취리히에선 3시간이면 인터라켄에 닿는다.

인터라켄에는 2개의 역이 있다. 그중 동역(Ost)이 산으로 오르는 등산열차의 시발역이다. 융프라우로 오르는 길은 2개가 있다. 양쪽으로 펼쳐진 2개의 계곡을 따라 기차길이 나 있다. 묘하게도 인터라켄은 「2개」가 많다.

동역을 떠난 기차는 쾰바이류치넨(2개의 계곡이란 뜻)까지는 한줄이다. 여기서 왼쪽은 시커먼계곡 그린델발트, 오른쪽은 하얀계곡라우터브룬넨으로 기차길이 갈라진다.

목가적인 마을 “그린델발트”

그린델발트(Grindelwald)는 해발 1,034m에 있는 산중마을이다. 인터라켄을 떠난 기차는, 수목이 우거진 계곡과 간간히 펼



쳐지는 산간마을, 목장 풍경을 보면서 약 40분후 그린델발트에 닿는다. 이곳에서 일단 내려 기차를 갈아 타야 한다.

인터라켄에서 융프라우로 오르는 등산 열차는 3개의 구간을 3개의 다른 철도회사가 분리 운행하며, 따라서 3번을 갈아 타야하는 불편이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단번에 해발 3,454m까지 오르는 경우 고산증의 발병 우려가 있다.

갈아타는 동안 중간역에서 쉬게 되고 고도적응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어, 융프라우에 오르는 사람은 고산증 걱정을 안해도 된다. 또 중간역 마을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하고 알프스를 먼거리, 중거리, 근거리에서 여러차례 감상할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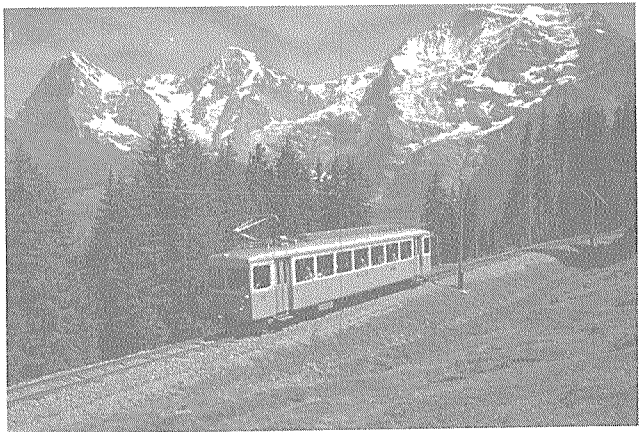
첫번째 구간은 인터라켄→그린델발트 또는 라우터브룬넨(BOB), 두번째 구간은 그린델발트 또는 라우터브룬넨→크라이네쉬타이크(WAB), 세번째 구간은 크라이네쉬타이크→융프라우요호(JB)다.

그린델발트에는 딱하나의 도로가 있고, 또 이것이 이 마을의 메인스트리트다. 이 거리에는 호텔, 레스토랑, 가게, 등산·스키 용구점, 관광안내소와 교회, 가이드연합회 등이 있다.

그린델발트에서는 양쪽으로 2개의 언덕길이 펼쳐진다. 왼쪽은 그로세쉬아테크, 오른쪽은 크라이네쉬아테크로 가는 계곡이다. 융프라우行 기차는 오른쪽으로 달려간다. 크라이네쉬아테크까지 4개의 중간역이 있다.

첫번째역인 그룬트를 제외하곤 모두 무인역이다. 또 주변에 인가도 없다. 왜 역을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산에 불일이 있어 오르는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일까. 경사각도 평균 25도의 언덕길을 오르는 동안 차창으로는 악마의 대명사 「아이거북벽」이 시야 가득히 들어온다. 시속은 약 15km, 자전거와 비슷한 속도다. 차는 빠격거리고, 의자의 기댄 몸은 침대에 누운 느낌이 든다.

▶ 라우터브룬넨에서
뮤렌으로 가는 등산열차.
뒤에는 아이거, 뮈히,
융프라우가 보인다.



알프스 등산열차는 궤도가 3개다. 중앙의 1개선로는 톱니바퀴형이다. 급경사 길을 오르기에 편리한 레일이다. 불과 19km를 달리는데 약 40분이 소요된다.

아이거 북벽 낙석소리 들리는 크라이네 쇠이테크

크라이네쇠이테크(2,061m)에 오르면 이미 하늘 꼭대기에 오른 느낌이다. 위로는 만년설에 뒤덮인 알프스의 웅장한 모습이 가슴을 짓누르고, 아래로는 까마득한 초원과 숲과 계곡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수목이 자라지 않는다. 하늘을 쳐다보면 어지럽고, 어디선가 생전 들어보지 못하던 신비한 소리가 들린다. 아이거북벽의 낙석이 떨어지는 소리, 융프라우의 눈이 무너지는 소리다. 아주 먼 곳에서 들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로 발밑에서 들리는 소리 같기도 하다.

크라이네쇠이테크에는 호텔과 역사(驛舍), 상점 등 몇집 안되는 건물이 있다.

「神仙」이란 바로 융프라우

크라이네쇠이테크에서 또 기차를 갈아 탄다. 황량한 산허리와 능선을 타고 약 10분 달린 뒤, 갑자기 열차는 터널 속으로 진입한다. 여기서부터 종점인 융프라우요호역까지 가는 동안, 계속 터널 속을 달린다.

기차길은 먼저 아이거(Eiger, 3,970)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뵈히(Mönch, 4,099)산 가슴속을 통과 융프라우의 목구멍 가까



▲해발 2,061m의 크라이네쇠이테크 마을. 뒤에는 웅장한 융프라우가 보이고 발 아래로는 초원과 계곡, 숲이 펼쳐진다.

이까지 산속을 달리는 셈이다. 재미 있는 것은 중간역이다. 열차는 터널 속에서 두 번 서는데, 정거장에는 굴이 뚫렸고 굴을 나오면 산의 절벽 중간이다. 캄캄한 굴속에서 나와 하늘을 보면 환상적인 세계에 진입한 것 같은 착각이인다. 깎아지른 낭떠러지 절벽중턱에서 보는 주위 경관은 기막히게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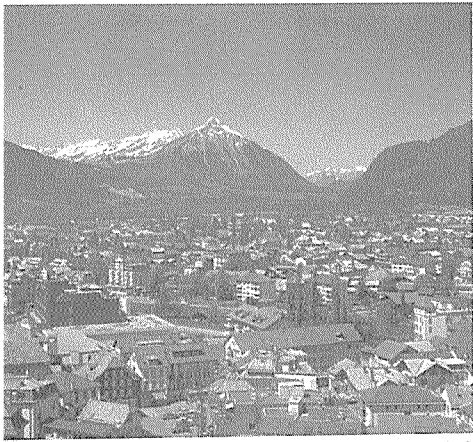
융프라우요호驛도 터널 속에 있다.

융프라우는 독일말로 처녀란 뜻이다. 베르그하우스 테라스에 나가면 융프라우를 바로 턱밑에서 보게 된다.

티 없이 맑은 흰색의 산봉우리는 「神仙(신선)」이란 이름으로 불려야 할 것 같다. 어딘지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위엄이 있었다.

부근에는 4천미터급 거봉(巨峰)들이 첩첩이 둘러서 있다. 알프스의 명산들인 뵈히, 아이거가 형제처럼 나란히 섰고 뒤로는 쉬렉크호른(Schreckhorn, 4,078), 뵈터호른(Wetterhorn, 3,701) 등이 겹겹으로 둘러싸다. 밑을 보면 유럽서 가장 긴 알렛치빙하(22km)가 흐르고 있다.

여기서 구내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면 어름 궁전이 있다. 어름으로



▲ 융프라우의 전진기지 인터라켄. 앞에 커다란 호수가 보이고, 호수 건너편에는 브리엔쯔르트호른(2,350m)의 날카로운 산봉우리가 있다.

조각된 여러가지 모양의 조각들은 만년 그대로 녹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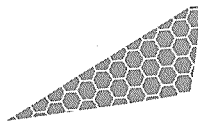
어름 궁전 반대쪽엔 또 하나의 전망대 스피그스 테라스가 있다. 이곳에선 알프스의 반대쪽 풍물을 보게 된다.

암벽에 둘러 싸인 라우터브룬넨

크라이네쉬아테크에서 내려가는 기찻길은 2개가 있다. 하나는 그린델발트, 또 하나는 라우터브룬넨. 올라올 때 그린델발트 코오스를 지난다면 내려갈 때는 라우터브룬넨 코오스를 택한다.

라우터브룬넨은 사방이 거대한 암벽으로 둘러 싸여 음산한 분위기의 산속마을이다. 알프스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느낌을 갖게 한다.

암벽 때문에 여름에는 아침7시 이전에는 햇빛을 볼 수 없다. 이 마을에는 낙차 300m의 폭포가 있다. 유럽에서 두번째로



크다는 폭포다. 이 폭포의 굉음은 산 절벽으로 울려 퍼져 신비로운 자연음을 낸다.

경사각도 61도의 뮈렌 등산기차

라우터브룬넨(796m)에서는 또 다른 등산철도 코오스가 있다. 경사각도 61도의 가파른 철도다. 이 기차는 뮈렌(1,634m)까지 간다. 뮈렌에서 케이블카를 갈아타고 다시 오르면 쉴트호른(Schilthorn, 2,974)까지 단숨에 도달한다.

쉴트호른은 영화 「여황폐하 007」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다. 전망대 옥상에 회전식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알프스의 경관을 볼 수 있다. 회전식이라 알프스의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게 된다.

그린델발트에서도 또 다른 코오스의 등산 리프트(Lift)가 다닌다. 퀴르스트(First, 2,168)로 가는 2인승 리프트를 타면 고도 차이 약 1,200m를 30분 동안 오르는데, 아이거의 서쪽벽 밑을 통과하면서 알프스의 명산들은 다른 각도에서 구경할 수 있게 된다. 퀴르스트에서 약 1시간쯤 걸으면 바호알프湖에 이른다. 수천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산중 호수속엔 쉬레크호른이 거울처럼 비친다.

또 그린델발트에서 핑슈테크(Pfings-tegg, 1,391)로 가는 짧은 케이블카도 있다. 핑슈테크는 쉬레크호른의 허리에 있는데, 빙하와 계곡, 빙벽 등을 볼 수 있다. **72**

〈필자 = 해외의학교류회장. 최신여행정보 발행인〉